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동서학원과 사상구의 협력



▶ 도시재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부산 사상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됐다. 지난 3월 6일, 뉴밀레니엄관 11층 글로벌홀에서 우리 대학(총장 장재국)과 사상구청(구청장 조병길), 경남정보대(총장 김태상), 부산디지털대(총장 최원일)가 손을 잡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특화 재생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공모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 연계로 로컬 콘텐츠 탄생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도시 재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022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세종로 커튼타운'의 경우, 세종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다. '조치원읍'의 로컬 특성을 살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로컬 내 청년 창업과 문화 체험을 하는 장을 만들었다. 또한 추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좋은

효과를 일으켰다. 이런 좋은 선행 사례가 있는 만큼 사상구도 로컬 콘텐츠 탄생을 통한 도시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주례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의 목표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활용력을 되찾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서학원의 대학들과 사상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

학 장재국 총장,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

최원일 부산디지털대 총장, 조대수 기획연

구처장, 홍기현 산학협력단장, 권경수 산

학협력부단장, 김수화 시각디자인 교수,

조병길 사상구청장, 구미정 도시재생과장,

심재현 기획처장, 이성욱 교무처장, 송종

원 입학홍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에 앉았다.

상세한 계획은 ▲주례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제반 사항 협조 ▲대학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기술정

보,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인적·물적 교류이며 협약 기관 간 상호협력 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을 구축해 사업추진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동서학원의 대학들과 사상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

학 장재국 총장,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

최원일 부산디지털대 총장, 조대수 기획연

구처장, 홍기현 산학협력단장, 권경수 산

학협력부단장, 김수화 시각디자인 교수,

조병길 사상구청장, 구미정 도시재생과장,

심재현 기획처장, 이성욱 교무처장, 송종

원 입학홍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에 앉았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학과 지역 간의 연

계를 통한 기대를 표했다. 우리 대학 장재

국 총장은 "이번 협약이 사상구와 동서학

원 산하 3개 대학 간의 관학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공모하는 데 있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대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성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사상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며 "관학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협력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다.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의 역할을 하며 사상구와 대

학들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대학 간의 연계가 좋은 사례로 남길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사상구의 도시재생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손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 우리 대학 내 전경

▶ 학생들로 블비는 스튜던트 플라자

▶ 학생들로 블비는 스

본캐와 부캐를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 양성

세상에 없는 대학 안의 대학 Q college 소개



▶Q college 성과 발표회 사진

Q college(학장 관준식)은 우리 대학 내 융합 교육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미래형 가상대학이다. Q college는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정하고(Question), 그 답을 찾아 나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를 키우기 위한 부캐 양성 도전 스플을 지향하는 세상에 없던 대학 안의 대학이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본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릭터(부캐)'를 만들어야면서, 1년간 Q college에 입학해 'X-Class', '기업가정신과 지기혁신', '퀀텀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끼와 열정을 살려 도전하는 '서브 캐릭터(부캐)'도 만들 수 있다. 멘처 CEO, 1인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영화감독, 게임개발자, 여행작가 등 그 무엇이든 자신만의 부캐를 만들려는 열정만 있다면 부산, 아시아, 미국에서 도전하고 그 결과물로 전공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 캠퍼스(Meta verse Campus)'를 구축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며 교육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Q college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겠다. 먼저, 퀀텀 점프 프로그램이다.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학기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육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아시아, 미국에서 도전하고 그 결과물로 전공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아, 부산을 거점으로 각 도시에서 한 학기 동안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국가별 협력대학 교수진과 Q College 의 코치진의 온·오프라인 커칭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장의 융복합수업엔 다양한 전공이 모여 융합 프로젝트를 만드는 X-Class 와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수업이 있다. X-class는 X-인재(exExperiment, eXplorer, eXpert, eXecuter)를 육성하는 동서대학교 대표 브랜드 교육이다.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수업은 창업, 창작, 자기 탐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에 성공한 졸업생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했는지 듣고 질문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도전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부캐 양성프로그램은 도전특강,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캐 이카데미로 구성돼 있다. 우선 2021년부터 추진해온 'Q college 도전특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특강이다. 특강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특강이다. 그 결과 외교부 주최 '제 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에서 대상인 외교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Q College 2기생들은 '제12회 부산 광역시 지원 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Q college 1기 학생들(왼쪽부터) 배성한, 박준성, 이다은 학생)

를 양성할 수 있는 Q College만의 오리지널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사회공헌프로젝트에는 ESG 프로젝트, 소중한 마트, 산재야 닷컴이 있다. ESG 프로젝트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소중한 마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마트의 출입문으로 국제신문, 우리 학교 eXplorer, eXpert, eXecuter)를 육성하는 동서대학교 대표 브랜드 교육이다.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수업은 창업, 창작, 자기 탐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에 성공한 졸업생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했는지 듣고 질문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도전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부캐 양성프로그램은 도전특강,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캐 이카데미로 구성돼 있다. 우선 2021년부터 추진해온 'Q college 도전특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특강이다. 특강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특강이다. 그 결과 외교부 주최 '제 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담 공모전'에서 대상인 외교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Q College 2기생들은 '제12회 부산 광역시 지원 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김종우, 유현아, 이정은), 은상(배소연, 임도효, 김시경)을 수상하였다.

2021년 2학기부터 본격 운영된 Q College는 1년에 2회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Q College 들에게는 다양한 장학혜택이 제공되며, Q College를 우수한 성적으로 출입할 경우 동시에 아니 소사이어티에 선발될 기회를 부여한다. 동시에 아니 소사이어티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과 국적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규 교과목과 특별코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니 소사이어티의 특징으로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현지 대학생과의 전공 및 어학연수(18주) ▲ 항공료(2번만 원) ▲ 현지 수업료, 숙식비 전액 지원 등이 있다.

Q college 선발 절차는 원서접수를 거쳐 예비합격자 발표, 예비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발 서바이벌 이후 최종 합격자 선발이 이뤄진다. Q college 신청 방법과 날짜는 홈페이지의 Q 계시판에 공지 사항에서 볼 수 있으니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Q college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Q college 웹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과탑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학점을 잘 받고 싶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공부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 특히 그중에서 시험 방식에 변화를 느낀다. 고등학교에서는 종합 평가나 대학 입시를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성취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논문, 프로젝트, 토론, 시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된다.

대학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들은 대학 공부가 어려울 수 있다. 학습 환경이 초중고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강의 내용이나 학습 방식, 평가 방법 등이 이전과 다르고 또한 더 많은 자율性和 책임감을 요구한다. 수업 출결이나 과제 기한, 개인 학습 계획 등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므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초는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건한 기초가 있으면 더 복잡한 주제나 전문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준다. 이는 학습 자료를 찾고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초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기초학습법 시리즈 강의가 존재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학습법 시리즈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전략 특강이다. 총 20개의 강의가 있으며 모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특히 목록에는 토목 설계와 시간 관리, 시험 대비 전략, 효과적인 필기법, 동기부여 전략, 집중력 향상 전략, A+ 리포트 작성법 등이 있다.

목표 설계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학습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여 학업과 여가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험 대비 전략은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 무슨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다. 효과적인 필기법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각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나중에 복습할 때도 유용하며,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기부여 전략은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



▶マイテックス 홈페이지에 기초학습법 시리즈 표지

를 형성한다. 내재적인 동기를 발휘해 학습에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중력 향상 전략은 효율적인 학습과 작업 완료를 향상한다. 실수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학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A+ 리포트 작성법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전문성 향상과 학습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진로 및 경력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기초학습법은 처음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시청 방법은 MYDEX 로그인 >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온라인 강의실'에서 시청 > (95% 이상) 시청 후 자동 자동으로 이수 된다. '이수' 확인 후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면 학습 포인트 1점이 지급된다. 재학생 휴학생 학년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수학습 개발센터 담당자 조보람(320-2647) 이곳으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초학습법은 효과적인 필기,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집중력 향상 등을 포함하는 학습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 위에 강의를 듣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 좋을 것 같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방송영상학과, 얼마나 더 대단해질 거야?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LINC 3.0 클래스셀링® 업무협약



▶LINC 3.0 클래스셀링® 업무협약



산학교과목 운영으로, 재학생의 실무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교내 가상회사인 「IF3.0 미디어아웃렛」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에 성과를 이루고 있다. 방송영상학과는 이번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업무협약 뿐만 아니라, (주)솔루와의 업무협약도 수 차례 진행했었다.

부산광역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은 1972년도에 설립돼 현재는 성현도 이사장이 위임해 있으며, 33여 개의 조합원사가 함께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앱으로 호출하면 찾아가는 버스인 '타비리' 및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 페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백 페스'는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대학 흥기현 산학협력단장, 부산광역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 이운명 부사장 외 조합 이사 9개 사 대표, 우리 대학 프로그램 운영 교수인 방송

영상학과 박미선 학과장, 김용성 교수와 참여 학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우리 대학의 방송영상학과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이 대중교통의 이미지 개선 및 편의성 등 흥보하는 동영상 제작 산학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상호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우리 대학과의 조합은 다양한 산학협력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기술로 전파되는 버스 활성화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흥기현 산학협력단장은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우리 대학에서 기획한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산학이 공동으로 교육하는 개방형 교육시스템이다. 우리 대학은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산학협력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했다.

이준명 조합 부이사장은 "부산 버스의 지향점을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역할로 제시하면서, 이번 산학협력이 시민 편의 증대와 전근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노력 과정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부분에서 동서대학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스셀링®은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에서 진행된다. LINC 3.0 사업단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유성 사업이라고 불리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메타 기술 기반 문화 콘텐츠 산학협력 선도 모델이 이 사업의 목표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디지털 영상·영상·콘텐츠, 디자인, IT융합, 글로벌 비즈니스, 바이오헬스를 중심분야로 국내 최고의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부·울·경 유일 10년 연속 전원 합격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전원 합격 쾌거 이루다



▶일본 레이와 건강과학대학과의 교류

우리 대학 작업 치료학과 4학년 학생 33명이 지난해 12월 2일에 시행된 제51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이에 우리 대학 작업 치료학과는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작업 치료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평가를 이를 수 있게 됐다. (* 2월 졸업생 기준)

작업치료학과는 부산 시내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2011년에 개설됐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이고 유능한 전문 작업치료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전공 영어교과 강화를 통해 해외 취업 및 해외 자제 대학과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의 작업 치료학과는 실습과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윤태형 교수의 보조기 및 의자 수업에서는 전국 최초로 회복학 실습 및 간강통합 실습을 하며 학생들이 교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많은 교류를 통해 귀한 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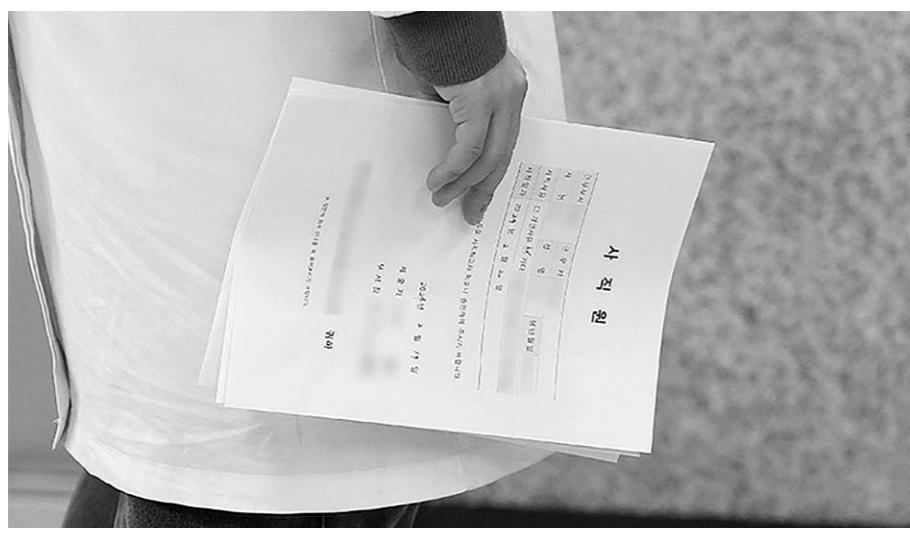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작업 치료학과 학생들은 10년 연속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작업치료학과 김태훈 학과장은 "동서 대학교 작업 치료학과는 우리나라 작업 치료 분야를 선도할 국제 수준의 인성과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작업 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학과 교수 전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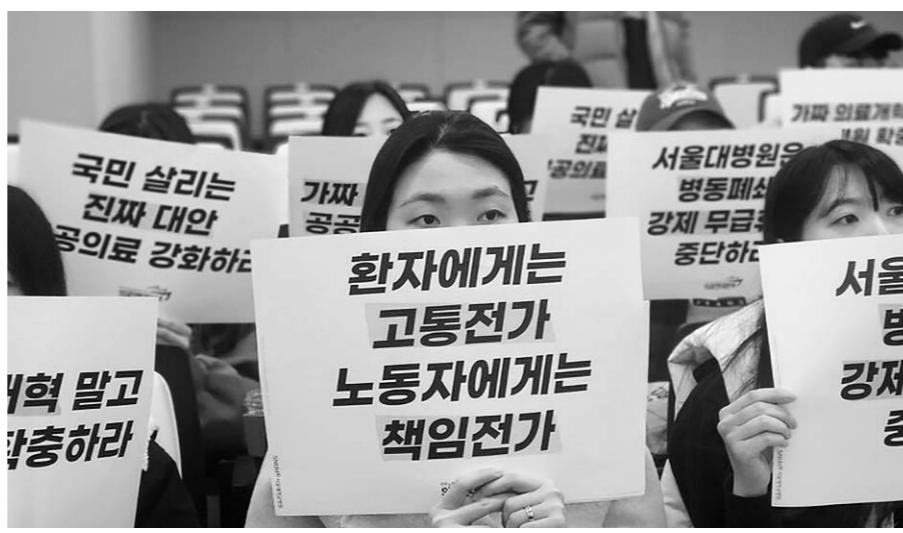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망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 개혁과 의사들의 파업, 본질은 무엇인가?



▶ 사직서를 들고 있는 전공의



▶ 서울대병원원회 대의원들, 기자 간담회

2024년 2월 20일,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커다란 의료 공백이 생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흐름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2월 1일 민생보험회를 통해 보고했다. 정책은 2025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을 기준의 약 3천 명에서 5천 명대로 2천 명을 늘리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천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의 붕괴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될 때마다 의대 정원 확충은 눈의 됐으나 매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돼 왔다.

의사 증원이 필요한 한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수련병원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매년 전공의가 미달되고 있다. 몇 년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가 있으며 환자들은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뻥튀기'를 들고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한다. 심각한 질환이 발생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도 병상이 없거나 치료할 의사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아 길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를 늘리자는 정부의 개혁은 왜 환영받지 못할까?

한 마디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충 정책은 필수의료 기회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재원 마련 방향도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늘어나는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원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지역을 나와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가서 일을 하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의성을 따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공공 의료기관이 많이 늘리는 것이 필요인데, 공공의료를 살리기보다는 축소시키려는 모습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도보

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진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한국은 95%가 민간 병원이고 자영업 개원의가 많다 보니 의사를 늘리는 것 자체가 경쟁 상황에 들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도 자신의 노동 조건과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환자들을 위해 진료 거부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의료 현장을 떠난 일부 의사들은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계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3월 26일부터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시작했다. 의사들의 주장으로는 ▲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가 문제다. ▲의과대학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Youtube 채널 '의대 정원 확대?'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에서 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병원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상 어

려움이 닥친 병원들은 남은 의료진들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하거나 전공의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도 법적 보호책은 미비한 상태다.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은 사명감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들도 피로감으로 일할 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증증 환자들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무기한 연기되는 수술과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학우들은 현상과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전공의의 노동조건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노동이 허용되고, 이를~사흘 연속(밤샘) 당직을 선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수련생이란 빌미로 전임의의 30~50%만 주며 일은 두 배로 시킨다. 대학병원은 돈을 위해 전문의를 뽑지 않고 전문의들은 쉽고 편하게 큰돈을 벌기 위해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몰리고 있다. 의사 부족, 졸립 현상, 수가, 실손보험, 공공 의료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지금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선배! 취업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후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빌드업 프로젝트

저학년 등 전로·직업탐색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회망·전공연계 직업정보 등을 종합한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제공.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 직업포트폴리오란? 희망하는 직업,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 어떤 경험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계획화 하는 것

빌드업 프로젝트 수행프로세스

워크넷 로그인 → 잡카페 수행 → 1차 기초상담 → 2차 심층상담(미래직진 프로그램) →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 진로 역량 강화프로그램 참여(교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진단상담,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기 직업체험 등) → n차 상담을 통한 수행 관리 → 수료

빌드업 프로젝트 참여혜택

1. 빌드업 프로젝트 수료시 우수 학생 취업지원장학금 지원
2.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료시 활동비(20만원) 및 우수 학생 취업지원장학금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수료시 참여학생 수당 지급 및 우수 학생 취업지원장학금 지원

청프업 프로젝트

고학년 등 진로설정이 완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진단 및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이에 따른 교내의 일경험, 취업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페키지 지원

청프업 프로젝트 수행프로세스

워크넷 로그인 → 잡카페 수행 → 1차 상담 → 참여 유형 선택(자기주도형 / 서비스참여형) → 2차상담 취업 활동

계획 (IAP수립 → n차 상담을 통한 수행 관리 → 수료 → 수당 신청)

→ ① 서비스 참여형 : 교내의 일경험 프로그램(교내 : 현장실습, K-Move, 일학습병행, IFS 등 교외 : 미래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 직업훈련 등)

→ ② 자기주도형 : 교내외 취업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청프업 프로젝트 참여혜택

1. 자기주도형 : IAP에 기재된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매 5시간의 활동시간마다 5만원 지급(월 최대 20만원)

2. 서비스 참여형 :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20시간 기준 2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단. 고용노동부 수당 지급 프로그램 참여일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청프업 프로젝트 수료시 참여학생 수당 지급 및 우수 학생 취업지원장학금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공요서비스 참여 안내

01.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희원전환(주민번호 실명인증)

02. 잡카페 등록

03. 재맞고 홈페이지 접속 후 "동서대학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04. 정보입력 후 '빌드업프로젝트' or '청프업프로젝트' 신청

청년지원정책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교내/교외)

-청년친화적 정책 홍보 및 사업 참여 연계(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후역량관리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및 직장적응지도 프로그램

-재취업지원 고용정책사업 연계

■ 취업 갈이 준 비해요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 삼성전자의 물수 캐릭터

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첫째로, 기업의 홈페이지다. 해당 홈페이지의 '삼성전자서비스'는 회사소개 코너에서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의 인재상은 '도덕적이고, 책임감과 도전 의식을 갖춘 창조적 인재'다. 세부적으로 도덕성, 고객지향, 책임감, 진취적 사고 등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둘째로,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의 언론 기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사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하는 방향이 반복, 언급되기에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SNS 소통 채널 역시 주목해 봐야 한다. 부서별 인터뷰와 필요 역량, 성과가 좋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Samsungsemiconductor)에는 '달수'라는 캐릭터가 소식을 전한다. 달수는 멀티위기 1급의 아성동물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삼성전자 자체가 경기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정화수를 방류해 인근 오산천 생태계가 살아나 수달이 돌아왔음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업장에서 버린 폐트병에서 뽑아낸 재생 섬유로 달수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높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에서 명시한 모든 인재상을 자기소개서에 일치시키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인재상을 자소서에 얹지로 맞추려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했다면 나의 인성과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정하고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취업을 하기 전 기업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 학우들을 응원한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초록이)을 반드시 구매하셔서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면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저는 주기적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 취업을 준비하는 신규간호사 오른 체팅방에서 면접스터디 멤버를 구해 함께 면접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면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좌절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에서의 자신감과 차이점을 핵심 기술과 의학용어, 약물 계산 시험을 청 평가합니다.

서류 합격 후 면접 준비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하계방학 면접 면접 스터디'를 신청하여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1주에 한 번씩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항목별 자소서 작성방법 뿐만 아닌 전반적인 구성 방안, 강점 및 역량을 잘 잡아주어서 더욱 내실 있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잡다AI'를 안내해주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무검사는 영상과 게임을 제외한 인성 및 가치관 검사만 시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통합평가전형으로, 즉 면접인데 타 병원과의 차이점은 핵심 기술과 의학용어, 약물 계산 시험을 청 평가합니다.

서류 합격 후 면접 준비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하계방학 면접 면접 스터디'를 신청하여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1주에 한 번씩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짊어지기보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혼돈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는 일 수 없는 보완점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매우 주제별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 꼼꼼히 봐주시는 모습에 더욱 힘내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김예진 컨설턴트

대학생생활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2024년 교양수업에서 배운 청의적생활코딩 앱인벤터 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외출이 제한된 대상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점으로 두어 자기소개에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외에도 <보건의료통합봉사회>라는 대외활동에 6개월간 부산진구 본부장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봉사 정신 쪽으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채용 준비 방법

자소서 작성이 처음이다 보니 작성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부산 스포츠에도 봄이 오는가?



▶부산 KCC 23-24 시즌 캐치프레이즈(출처: 부산 KCC 이지스 홈페이지)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하면 대부분 야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뤄볼 이야기는 올 시즌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부산 KCC 농구단이 아기이다. 현재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 스포츠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 BNK 썬 여자 농구단, 부산 아이파크, 부산 KCC 남자 농구단이 있다. 그러나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 스포츠 구단 중 우승, 승격, 가을야구 등 좋은 성적을 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팀은 없다.

부산 아이파크가 저번 시즌 K리그에서 1위를 마지막 경기까지 지키다 아쉽게 놓치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아쉽게 수원FC에 밀려 2부 리그에 진류하였다. BNK 썬은 2019년 창단 이후 진행된 5시즌 중 끝까지 두 번 우승은 0회이다. 롯데 자이언츠도 2017년 준플레이오프 진출 이후 가을야구와 거리가 멀었고 정규리그 우승은 0회로 야구팬들로부터 많은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런 암울한 스포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리오고 있는 것이 부산 KCC 농구단이다. 부산 KCC는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작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 KBL 컵

(10월 8일~15일)에서 모든 경기에서 이기면서 바로 우승을 거두었다. 대회 MVP는 부산 KCC의 알리제 존슨이 수상했다. 지난 26년간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를 통틀어 한 번도 우승팀을 배출하지 못했던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것이다.

부산 KCC는 이승현 선수(31)와 하웅 선수(30), 귀화 선수 리건아 선수(34)가 건재한 데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이자 2021~22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인 최준용 선수(29)까지 영입하면서 슈퍼 팀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다. 시즌 전 열린 KBL 컵에서 우승하면서 본인들이 왜 슈퍼 팀이라고 불리는지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KBL 컵 대회를 치르면서 최준용 선수가 개막 직전 오른쪽 허벅지 부상을 당해 시즌 시작에는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국가 대표 포워드 송교장 선수(27)도 시즌 개막 후 11월에 상무에서 제대해 KCC에 합류 예정이었다. 11월이 되면 KCC는 진정한 '국가대표 팀'을 갖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부산 KCC는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4월부터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출전기는 4월 8일(월), 4월 10일(수) 부산 사직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플레이오프 티켓 예매는 KBL 통합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가능하며,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농구경기는 공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가운데 좌석을 예매해 양쪽 코트가 잘 보이게 앉기로 권장된다. 구단 연고지 이전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가 이번에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움츠려있던 부산 스포츠에 다시 한번 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해주세요.

파 마진을 +7을 기록하며(17승 10패) 슈퍼 팀이라는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다는 평이었지만 순위는 8등에서 5등까지 상승했다.

그 이후 진행된 리그에서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여전히 선수단에 비해 약화된 성적으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그 데도 3월 17일 진행된 고양 소노 스카이 거너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팀의 경기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팀이 패하며 부산 KCC의 6강 플레이오프행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부산 KCC는 잔여 경기에서 순위 변동 없이 3월 31일 서울 SK전을 끝으로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KBL의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 4위와 5위, 3위와 6위가 5전 3선승제로 맞붙는다. 두 경기 모두 1·2·5차전은 높은 순위의 팀 경기장에서 열린다. 그 이후 4위와 5위 중 승리 구단이 1위와, 3위와 6위 중 승리 구단이 2위와 맞붙으며 각각의 승리 구단이 젤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게 된다. 6강과 마찬가지로 4강도 5전 3선승제로 열린다.

부산 KCC는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4월부터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출전기는 4월 8일(월), 4월 10일(수) 부산 사직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플레이오프 티켓 예매는 KBL 통합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가능하며,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농구경기는 공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가운데 좌석을 예매해 양쪽 코트가 잘 보이게 앉기로 권장된다. 구단 연고지 이전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가 이번에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움츠려있던 부산 스포츠에 다시 한번 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해주세요.

부산 KCC의 감독인 전정진 감독은 "(송)교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슈퍼 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직 '동네' 슈퍼 팀이에요."라는 인터뷰를 남겨 팬들에게 아쉬움을 달았다. 다시 부산 스포츠에 먹구름이 끼는 듯했다. 그러나 송교장 선수와 최준용 선수가 합류한 KCC는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승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파격적인 묘사, 파묘



•영화 제목: 파묘
•영화 감독: 장재현

요즘 영화계는 침체기이다. 뛰어난 퀄리티나 독창성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최근 큰 화제를 낳으며 주목받은 영화가 있다. 바로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 *파묘*다.

*파묘*는 박지용(김고은)과 그의 제자 '봉길'(이도현)이 태어난다. 스튜디오스가 화림에게 일본어로 와인을 권하자, 화림은 유장하게 일본어로 펜찮다고 하고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한 화림과 봉길은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에 아기 엄마와 집사는 깜짝 놀란다. 만난 의뢰인 '박지용'(김재철)은 자기 형이 정신 병원에 있었고 자살한 뒤 아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봉길과 화림은 전문가들을 불러야겠다고 판단해 그 전문가들은 지관 '김상덕'(최민식)과 장의사 '고영근'(유해진). 파묘 작업을 하고 유골을 수습하는 동안 상덕은 자신이 선택한 묘지가 좋다고 말하며 명당자리라고 설

명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꿈에서 자주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의문을 품다. 상덕이 누군가 할머니의 틀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 틀니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에 상덕이 아이를 위로하며 지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화림이 만난 의뢰인 가족의 파묘를 위해 묘를 찾은 그들, 하지만 상덕이 묘를 보자마자 이 의뢰는 진행할 수 없다면 완곡히 거절한다. 의문을 품는 하림, 연근, 봉길에게 상덕은 의뢰를 거절한 이유를 밝힌다. 하지만 결국 의뢰를 받아들여 묘를 파내고 화장하려 했지만 비가 와 관을 장례식장에 잠시 둔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이를 열어 혼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후 LA에 있는 박지용 씨의 저택에 있는 박지용의 부 박종순과 어머니가 혼령이 목을 졸라 쓰러지게 된다. 상덕 일행은 훈 브루기를 통해 혼령을 관에 다시 가두려 하지만 '내 새끼를 데리고 갈라고'라는 말을 들으면 그를 놓치게 된다.

한편 박지용 씨는 상덕의 전화를 받는 중 갑자기 문밖에서도 상덕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상황. 결국 그는 전화로 문을 열라는 말을 듣고 침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진짜 상덕은 사실 문밖에 있었던 것. 뒤늦게 문을 열고 들어온 상덕의 눈에는 박지용이 혼령이 빙의된 채 있었다.

혼령이 과거 친일파였던 그의 조상이 기에 일제식 경례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 상덕이 관에 대해 말하려하자, 'キツネが虎の腰を切った'(키츠네가 토란و 코시오 킷타.)라는 말을 한다. 이에 목을 뒤집어 '여우가 범의 하리를 끊었다고'라는 말을 남기며 쓰러진다. 혼

순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벚꽃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나랑 같이 가요!



▶남천동 벚꽃거리



▶부산 인근 벚꽃 사진

하고 이야기하기 좋은 길이다.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

부산 시민공원

만약 벚꽃이 가득한 산책길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 사계절 모두 방문해도 좋은 공원이지만, 봄날에는 더 빛나는 곳이다. 적당히 그늘진 곳에서 벚꽃을 구경할 수도 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러 오는 폐적인 장소다. 봄날의 바람의 느끼며 장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다. 봄바람을 즐기며 눈이 즐기울 수 있다. 좋은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 풍성하게 내리는 벚꽃잎으로 설레는 마음까지 짧아하게 된다.

↳ 피크닉

시민 공원에는 하야리아잔디광장이 크게 있어 5월부터는 피크닉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잔디광장의 이용기간은 1월, 5월 ~12월(9개월간)이며 화요일~일요일 6일 동안 개방한다. 월요일은 매주 통제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솜마당 및 아트센터 잔디광장은 상시 개방되며, 잔디상태에 따라 탄력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잔디밭 내에서 금지행위는 철학, 텐트 및 그늘자리 설치나 공을 이용한 운동이나 게임을 불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과, 자전거 출입은 불가하며 쓰레기 투기

는 해서는 안 된다. 하이힐을 착용할 경우 잔디가 상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부산 시민 공원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 쉽게 음식을 구매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트레이더스는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11시에 피크닉을 즐기려면 일찍이 움직여 피크닉을 즐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해당 장소에서는 대량 구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함께 하는 경우 용이하다. 일찍 방문하면 충분한 치킨이나 피자를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간식들과 음료 등을 구매해 풍족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좋은 봄날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부산 시민공원에 방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한다.

삼락생태공원

가까운 장소에서 벚꽃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우리 학교에서 40분 정도 가면 삼락생태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흙자서나 연인끼리 사진 찍기 좋은 아늑한 공간에 벚꽃이 가득한 느낌이다. 다른 곳들은 다 멀어서 가기 힘들다면 지금이 기회다. 학교에 다니는 이 시기에 친구와 웃기기 좋은 기억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있다. 그만큼 가격이 된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같이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걸으면서 얘기하기 좋으니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으니 가보길 바란다.

↳ 낙동 제방 벚꽃길

삼락공원을 걷다 보면 '낙동 제방 벚꽃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서로 사진 찍어 주기가 더 좋다. 드넓게 펼쳐져 있어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이 즐거운 길을 원한다면 바로 이 길을 추천하여 방문하면 좋을 듯하다.

추억

사람들은 종종 추억을 발판 삼아 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지 않는가. 새로운 세상을 매일 만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작은 삶이다. 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 사이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여 벚꽃놀이를 간다면 그 기억은 나중에 축적해 둘 수 있는 식량이 될 것이다.

준비

모든 것에는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지만 무계획은 때론 새로운 순간을 즐기게 한다. 갑갑한 수업을 벗어나 아무 생각없이 벚꽃을 즐겨보자. 친구와 함께 달려가며 벚꽃을 향해 소리치며 행복을 담도록 하자. 스스로의 창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 아니 말이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축제·공연 소식



광안리 M(Marvelous) 드론 라이트쇼

- 기간: 2022. 04. 02. (토) ~ 2024. 12. 31. (화)
- 장소: 광안리해변 일원
- 주최: 부산광역시 수영구
- 입장료: 무료



부산과학축전

- 기간: 2024. 04. 13. (토) ~ 2024. 04. 14. (일)
- 장소: 벡스코(BEXCO) 제 1전시장
-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입장료: 무료



부산연등회

- 기간: 2024. 04. 26. (금) ~ 2024. 05. 12. (일)
- 장소: 송상현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원
- 주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 입장료: 현장구매 1만 5천 원



RE:PLAY 우리시대의 삽화

- 기간: 2024. 04. 04. (목) ~ 2024. 04. 27. (토)
- 장소: 아트로공원
- 입장료: 3만원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부산

- 기간: 2024. 04. 06. (토)
-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R석·4만 원 | S석·2만 원



- 기간: 2024. 04. 06. (토) ~ 2024. 04. 07. (일)
- 장소: 부산 KBS홀
- 주최: 부산 KBS
- 입장료: R석·14만 9천원 | S석·12만 9천원



- 기간: 2024. 04. 07. (일)
- 장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주최: 해운대 문화회관
- 입장료: 3만원

통학러의 가방 속 #What's in my bag

나만 알고 싶은 아이템 Best 5



▶화제를 끌었던 티파니의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와츠 인 마이 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의 가방은 물론 가방 속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어느새 유명이 아닌 스테디 콘텐츠가 됐을 정도로 화제를 끌고 있는 와츠 인 마이 백.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해 왕복 3시간 통학러의 가방을 파헤쳐봤다.

보조배터리

첫 번째 아이템은 보조배터리다. 가방 속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브랜드의 보조배터리 중에서도 알로 거지대 도킹형 미니 보조배터리를 추천한다. 용량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점이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다. 또 거치대가 있어 충전하면서 편리한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

겁고, 오래 걸리는 충전 시간에 지친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이다.

멀티비타민

환절기에 식곤증을 벼텨내기 힘든 요즘, 지친 몸을 일깨워줄 멀티 비타민을 추천한다. 멀티 비타민은 일반 비타민에 비해 휴대가 편리하며 하루 1병만으로 지친 일상에 헬스를 붙여 넣어 줄 수 있다. 또 물 없이 섭취가 가능해 조금 더 편리하게 건강을 행길 수 있다. 특히 야외활동을 자주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에게 추천한다. 비타민 한 알도 제대로 쟁겨 먹기 어려운 요즘, 가방 속 멀티 비타민으로 건강을 쟁겨 보자.

구강 스프레이

다음 아이템은 루치漯로 프로즌피루나



▶통학러의 What's in my bag? ①

마우스 스프레이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칫솔과 치약을 쟁겨 다니며 양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강 관리지만 칫솔, 치약을 쟁기지 못한 날이나 급하게 발표를 앞두었을 때 이 스프레이를 입에 2~3번 뿌리기만 하면 구강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수업 중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입이 텁텁해졌을 때 애용하는 아이템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하나씩 가방 속에 구비해두는 건 어떨까?

케이블 수납 케이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나 노트북 충전기가 차지분하게 널려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그럴 때 무인양품의 케이블 수납 케이스를 사용해 보자. 기본적으로 충전기 2개씩 들고 다니는 편이기에 무조건 케이블 수납 케이스를 이용해 감아서

휴대한다. 그것이 충전기 선의 사용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보관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단점은 뺏자면 노트북 손과 같은 굵은 선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케이블 클립을 추천한다.

핸드크림

다음은 환절기 필수 아이템인 핸드크림이다. 특히 핸드크림이 향에 호불호를 많이 타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거의 무향에 가깝고 보습 효과가 좋은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 핸드크림을 추천한다. 또 학기 중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해야 해서 균형 잡히게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는 핸드크림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양한 핸드크림을 사용해 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흡수가 되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 핸드크림을 여



▶통학러의 What's in my bag? ②

러 번 재구매해 사용 중이다.

헤드셋

마지막 아이템은 왕복 3시간 통학러에게 필수 아이템인 헤드셋이다. 현재 소니의 WH-1000XM5 제품을 사용 중이다. 소니 헤드셋과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성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극강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현재 헤드셋을 고민하고 있지만,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망설이는 당신에게 소니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단백질 쉐이크

통학하다 보면 대중교통에 갇혀 한 끼도 제대로 쟁겨 먹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필자가 쟁겨 먹는 '플라이밀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한다. 다른 단백질 쉐이

크에 비해 당이 낮아 건강을 쟁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복까지 있어 포만감을 제우기 좋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가방 안에 쑥 넣어 다니기 편리하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초코다'. 물을 넣어 먹어도 초코라테의 맛이 살아있어 단백질 쉐이크라는 편견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시간에 허기지만 제대로 된 한 끼를 듣는 하게 채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지금까지 왕복 3시간 통학러의 가방 속을 파헤쳐 봤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추천하는 Best 5의 아이템들도 만나보았다. 이제 막 대학 생활 1달 차가 된 새내기들이나, 가방 속 아이템들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밥은 먹고 다니냐?

뭘 먹을지 고민하다 학식만 먹는 학우들이여 주목하라!



▶부산 사상구 주례로 68-1에 위치한 평창매밀막국수

우리는 항상 고민한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번 기사에서는 23학번 오현지 기자가 먹어본 밥집 중 맛있었던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다양한 곳이 있으니, 마음이 가는 곳을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한끼와 간식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집밥이 그리운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다. 다양한 밥 종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쇠고기 치즈볶음밥'이 매력적이다. 마치 야식을 빼먹는 듯한 느낌과 비슷하다. 쇠고기 치즈볶음밥은 철천 오백 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무라이스, 새우 볶음밥, 김치 볶음밥, 짬뽕 볶음밥, 해물 볶음밥, 쇠고기 볶음밥은 모두 철천 원에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장님의 친절하신 편이라 밥을 먹을 때도 기분이 좋다. 쇠고기 치즈볶음밥을 먹으며, 가끔은 집밥이 그리운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맛은 언제 먹어도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학교 근처 밥집의 규칙

우리 학교 근처 밥집은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종이에 작성해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몰려왔을 때나



▶부산 사상구 주례로 70에 위치한 한끼와 간식

인원수가 많아 파악하기 힘들 때 잘 이용되는 방식이라 서로 편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다.

평창매밀막국수

이 곳은 막국수가 메인이다. 봄에 먹기에는 조금 추운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다. 여름에 먹는다면 정말 절때인 메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원한 막국수를 주문해 먹는다면 더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메뉴 가격은 메밀 콩국수, 메밀 비빔막국수, 메밀 콩국수, 밀면은 동일하게 팔천 오백 원이고, 만두국은 일원 원, 메밀소리는 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나오는 메밀 막국수의 양을 본다면 납득이 간다.

단짜 친구 매밀전병

특히 같이 먹어야 하는 메뉴가 있다. 바로 '매밀전병'이다. 막국수도 맛있지만, 매밀전병 안에 김치와 다양한 것들을 매밀이 감싸고 있어 먹으면 쫀득해서 다시 생겨나는 맛이다. 쫀득한 식감과 만두같이 속이 가득 찬 음식을 좋아한다면 매밀전병도 좋아할 것이다. 시도해보길 바란다. 막국수가 메인이긴 하지만, 매밀전병과 먹기 위해 다시 생각나는 메뉴가 된다. 메밀전

병은 육 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니, 친구들과 간다면 같이 나눠먹길 추천한다.

화반

신입생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가게 필리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이곳은 '두루치기'가 메인인 곳이다. 두 명이 가면 두루치기 2인분에 찌개 두 개를 먹을 수 있다. 기다렸다가 음식이 딱 나오는 순간 엄청난 양을 보고 놀라지 마라. 그만큼 밥과 함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밥뿐만 아니라 위에 계란도 외롭지 않게 올려준다. 김치 두루치기 세트는 구천 오백 원, 고추장 두루치기, 간장 끼치불고기 세트는 구천 원으로 비빔밥 세트는 팔천 원이다. 비빔밥을시키고 미리 물을 부어놓으면 누룽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매료신가

여기는 짬뽕이 특별하다. 보통의 짬뽕은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보통이라면, 이곳은 고기의 향이 더해진 느낌이다. 그 집 牛 짬뽕은 차돌이 들어가 끓고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짬뽕면은 맹초고기짜 면이다. 맛있다. 맛을하면서도 짬뽕면이 질리지 않도록 해주는 맛이다. 기존의 짬뽕과 짬뽕면의 맛이 질린다면 이곳에서 탕수육과 함께 세트로 즐겨봐라. 그 집 牛 짬뽕과 주구미 짬뽕, 중화 비빔면은 만 오백 원, 평소 짬뽕은 구천 원, 그집 짬뽕은 팔천 원

같이 나와 친구와 둘이 먹기 좋은 세트가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최소 2인분 주문부터 가능하다.

매력적인 사장님

사실 이 집은 사장님의 매력적이다. 갈비찜의 맛 또한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매운 것을 좋아하면 매운맛으로 먹기를 추천하며, 맵기의 단계를 고민한다면 사장님의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또한, 갈비찜은 먹기 좋도록 모두 빼고 끓여 놓아 준비해 준다. 젓가락만 준비하면 되는 이 집은 쿨피스를 시키면 쿨피스까지 직접 얼어주신다. 이토록 매력적인 사장님 덕분에 갈비찜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밖에 없다.

그집 짬뽕 0927

오백원, 팽조고기짜 면은 철천 원, 고기 짬뽕면은 육천 오백 원, 해물 뚝 짬뽕은 이 만 삼천 원이다. 친구끼리는 주로 세트 메뉴를 많이 주문하며, 1인 짬뽕과 짬뽕 세트가 있고, 2인 짬뽕과 짬뽕, 짬뽕 세트가 있다. 짬뽕과 짬뽕면은 육천 원이나 나오고, 물이 먹거나 샐러드 먹어도 괜찮은 정도다. 세트에서는 기존 짬뽕과 짬뽕이 나오니 메뉴 변경을 원



▶부산 사상구 주례로 76-1 1층에 위치한 화반(출처-네이버 지도 대표 사진.)



▶부산 사상구 주례로 9번길 90에 위치한 매료신가(출처-네이버 지도 대표 사진.)

하면 금액을 추가해 변경이 가능하다. 이집 탕수육은 다른 탕수육과 달리 더 바삭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탕수육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밥집을 소개했다. 직접 가보고 먹어본 곳이니 매번 먹던 밥 말고 다른 탕수육 찾는다면 시도해보길 바란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초석

초석,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을 뜻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린 인간관계의 초석을 잘 쌓아 올리고 있는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어찌면 죽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기둥을 받치는 초석처럼 인간관계 역시 상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관계를 잘 쌓아 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의 초석을 가장 잘 쌓을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초석 3개를 소개해 볼까 한다.

소통

첫 번째 초석은 3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통'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마하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거짓 없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 어떤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공감

다음은 '공감'이다. 요즘 가장 자주 접하는 MBTI에서는 흔히 F와 T의 차이 점이라고들 말한다. 감정형의 F는 상대방의 말에 제일인 양 격하게 공감하고 사고형인 T들은 그러한 일에 원리, 원칙을 앞세워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그래서 보통 T들은 공감을 못 한다는 것이 헛하게 널린 이야기다.

그러나 필자는 F, T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을 초석으로 삼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차이점은 F는 눈에 보이는 공감을 하는 것이고 T는 마음속으로 공감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시인荷墨洛斯는 "공감할 줄 아는 친구는 형제만큼 소중하다"라며 공감이라는 감정을 높게 평가했다. 우리는 상

대방의 말에 공감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다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이해

마지막은 '이해'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인간관계의 명언이 있다. 황희정승의 "너도 옳고, 그도 옳고, 나도 옳다."이다. 서로 옳고 다른 사람에게 맞는 그대로의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겸비하는 건 어렵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더 나아가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초석들이 하나씩 쌓인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도 어디서부터 초석을 쌓아야 할지 막막한 독자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잘 지내다는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초석을 쌓아야하는 건 어렵다. 상대방 역시 독자와 초석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죽비소리

달리고, 구르고, 뛰어넘어, 착지한다

김효경 (방송영상학과·2학년)

2024년 첫 개강,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추운 올봄의 추위 때문일까요? 작년 이맘때와 달리 꽃봉오리들은 아직 입을 굳게 다문 채 봄 감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때쯤에는 흘러나는 벚꽃잎을 보며 사진첩을 하거나 냇가에 체우고 있음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늘 보아온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어딘가 설레이 보이는 새내기들 사이에서 정신없는 현내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대학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는 문장이나 단어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주가 있는 분이라면 춤이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땀 한 방울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대학은 '멀리뛰기'입니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 친구는 낭만 많아서 허를 쟁었으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멀리뛰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달리고, 구름판을 밟아 힘차게 구르고, 힘을 얻어 멀리 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멀리뛰기 즉, 대학을 이용해 제 꿈에 달고자 합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학은 제게 '꿈을 향한 수단'이라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 2학년이 된 저는 달리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뛰쳐질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내달리는 이 과정이 지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밤을 새워

가며 기획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스토리보드를 한 칸씩 채워 나갈 때 적성이 맞다는 건 이런 것인가 느끼곤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든든한 전율을 얻기도 합니다. 늘 재밌는 동기들과 교수님 못지 않은 멋진 선배님들, 부모님께서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은 어쩌면 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빙백질을 양분 삼아 구르고, 멀리 뛰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의 과정 동안 일기를 하며 겪었고, 결국 내내 대학에 온 것이지만 결코 적응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실 매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잡으나마 내려놓고 싶다. 다음 과정이 무섭다. 휴학할까? 그럼에도 저는 쉽사리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선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어때한 결과도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진부한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이유입니다. 24시간 중 고작 10분만 할애해도 충분한 일기 쓰기조차 한 번 멈춰 멀리기 시작하면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린 것인데 설마 그 멀리뛰는 끝을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확정 지어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하여 저는 '결과가 좋고 그린 것을 떠나서 멈추면 힘드니 일단 멈춰 둘파로, 대학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어 보자.'는 생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게 뜻하는 대학의 더 나아간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사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대학생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대학 내 총학생회 회장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 대학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제 막 입학한 대학생들은 생각보다 학교생활이 재미없다고 한다. 선후배 간의 교류, 심지어 등굣길 간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으며, 그저 홀로 학교를 지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 현재 사회 문제점들이 어떤 차이에 관한 고민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하기에도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됐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학적 인 관심,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 3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다.

현재 세대의 대학생들과 이전 세대의 대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적은 학생 수, 코로나 이후로 인해 바빠진 비대면 강의, 줄어든 열정이 떠나온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대학 내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개인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개인주의는 대체로 개인주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단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당시 금속화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취향에 맞는 관심사를 언제 어디서든지 주제로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생각할 기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것, 직접 이름을 짓는 것, 직접 글을 쓰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부여했을 때만이 거기에 따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직접 해야만 했다. 직접 부딪혀 암만 알 수 있었다. 기회들이 사라져 가기에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사회와 집단보단 개인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단체 생활을 눈치 보며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싫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또 어떤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조직에 빼내어 바라보며 '현명한 세대'라고도 한다.

뉴스 기사나 칼럼을 찾아보면 대학생

들의 개인주의 양상은 2000년대부터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에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이 중요시 될수록 개인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나의 주변, 타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요즘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놓여있다. 현재 출산율은 0.7~0.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소멸 예정 국가로 UN 포럼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이라는 책의 저자인 사를 페펜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느낄 때 자기 신뢰를 생겨난다. 타인 신뢰가 곧 자기 신뢰를 만든다'고 했다.

현세대의 대학생들은 한국 내 변질된 개인주의로 인해 타인 신뢰를 느끼기에는 힘든 환경이 됐다. 앞으로 타인의 신뢰를 얻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에 못 이겨 무너져 내릴 때가 찾아올 것이다.

또 미디어 매체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죽면도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버스가 언제 언제 주차하는지, 어플로 간단한 송금하기 등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취향에 맞는 관심사를 언제 어디서든지 주제로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생각할 기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것, 직접 이름을 짓는 것, 직접 글을 쓰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부여했을 때만이 거기에 따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직접 해야만 했다. 직접 부딪혀 암만 알 수 있었다. 기회들이 사라져 가기에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 보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찾도록 하자.

목회 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신념의 초석을 바로 놓자

지며, 이 기초 없이는 화려한 건물도 쉽사리 무너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초석을 잘 놓아야 목표를 이루게 됨은 자명하다. 역으로 바로 놓인 초석이 없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원망이다. 초석이 중요한 깊은 물의 '방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석의 크기에 따라 건물의 크기도 다르게 놓인다. 인생의 방향과 그의 크기도 인생의 주춧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초석'은 인생에서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바로 신념이다. 신념이 인생의 초석인 깊은 인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은 확장된다. 그려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투기가 격추당해 두 명의 전투 조종사가 악명은 호아로 수용소에 갇혔다. 그들은 격리 수용돼 늙은 쇠사슬에 묶인 채 심한 고문을 당했다. 두 사람 모두 고문을 당했지만,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은 이제 행동이 자유롭기도 하고 재편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런 꼼짝한 사건으로 자신과 동료,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됐다. 제럴드 커피(Gerald Coffee) 대위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나 도전,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힘을 일깨워 왔다.

나는 나의 인생에 어떤 신념의 초석을 놓았는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다. 운명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달려 있지 않다.

운명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렸다. 두 사람 모두 고문을 당했지만,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자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

기자칼럼

대한축구협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최근 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축구협회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축구 협회장 정몽규 씨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빙터에 놓여있다. 현재 축구협회장 정몽규 씨에 대한 사퇴 요구도 놓여 있다. 그로 인해 축구협회장은 개인주의를 성립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사내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짓을 벌였다는 것은 더욱더 비판받을 만한 것이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다. 이에 더 나아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데 깊게 관여한 회장 정몽규 씨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벗발쳤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몽규 사퇴해야'라는 막대한 글을 달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무분별하게 믿고 되어 축구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까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성 있는 맛을 깨닫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몽규 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줄어들고 단지 '사퇴해야'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그들 간의 간극을 줄이기도 쉽지 않거니와, 진지하게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의 진정성까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론은 죄악인 것을 죄악 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사내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짓을 벌였다는 것은 더욱더 비판받을 만한 것이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다. 이에 더 나아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데 깊게 관여한 회장 정몽규 씨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벗발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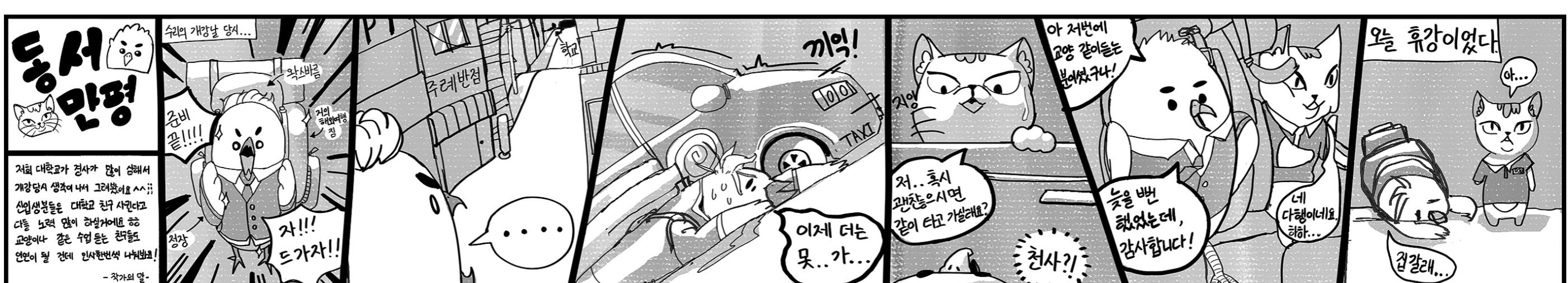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몽규 사퇴해야'라는 막대한 글을 달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무분별하게 믿고 되어 축구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까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성 있는 맛을 깨닫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몽규 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줄어들고 단지 '사퇴해야'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그들 간의 간극을 줄이기도 쉽지 않거니와, 진지하게

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그것은 굳이 강요할 수 없다. 한편 태국전에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악마'가 축구협회는 연신 '정몽규 나가'를 외치며 그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태국전 응원과는 별개로 그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축구협과 정 회장 측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사퇴만은 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국민들은 정 회장의 사퇴와 축구협의 대대적인 개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번 판국이니 서로 같은데 깊어지고 문제해결이 대로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의 태도도 성질화 불 필요가 있다. 정녕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있는가. 축구협이 개선해야 할 정당한 논리와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순히 '사퇴해야', '개선해라'하며 무작정 비난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소통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 학생 인터뷰 – 방송영상학과 서누리

2023년 LINC 3.0 우수학생을 만나다!

대상 수상 서누리 학우와의 만남



▶ 서누리 학우



▶ 세일 글로벌 제품 소개 촬영

LINC 3.0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자기 기반 구축, 기업 가치 창출,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요소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역량을 개발하고 우수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우수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인 서누리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서누리입니다.

Q. 수상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받게 되었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A. 우수학생에 선정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대상'임을 알게 돼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 매우 뿌듯합니다.

Q.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A. 캡스톤디자인 수업인 디자인 컨설팅 프로젝트로 미디어아이슈분석, 스튜디오 생방송 제작, 화승그룹과 ESG 콘텐츠 제작, 동구 지역 콘텐츠 제작, 화승그룹 70주년 축하 및 화승그룹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Q. 어떤 경로로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었나요?

A. 방송영상학과 내에 캡스톤디자인 수업들이 많이 있었고,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주셔서 참여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표준현장실습과 경진대회는 평소에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Q. 그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A. KBS 증기 표준 현장실습 프로그램

입니다. 방송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보고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Q. 다른 학업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있었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제작하는 영상이 많았기에 학업과 병행하는 것에 쉽지 않았고,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과정들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에 참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과 동기들의 조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학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스포츠 중계나 구단 콘텐츠 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생방송 제작 수업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스포츠 중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구단에 대해 직접을 들으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ESG 센터'라는 큰 센터를 살피하고 담당자와 미팅하는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우수 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점을 두고 작성한 것이 있다면?

A.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또한 해결한 후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IPS1'에서는 '부산 동구'를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어려움이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방문 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사전 조사 과정과 작가와 함께 담사를 다니온 내용으로 해결 방안을 작성했습니다.

'화승그룹과 ESG 콘텐츠 제작 클래스 셀링' 수업에서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화승 그룹'을 회사 탐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던 점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gmail.com

움 및 인턴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던 것을 중점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오월의 정준' 사무리 데비 콘텐츠 제작을 통해 KBS 장비 활용에 대해 배웠던 점, 녹음 실을 방문해 녹음의 상세한 과정에 대해 알게 된 점, '隽투뉴스' 제작에서 받은 피드백(실무 편집 과정, 조심해야 하는 것)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Q. 부산 동구 지역 콘텐츠는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나요?

A. 우리 동네 ESG 센터 2호점(동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ESG 센터는 자원 순환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동구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센터를 알고자 했습니다. 사전 답사와 담당자와의 미팅, 어르신들에게 센터에 대해 직접을 들으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ESG 센터'라는 큰 센터를 살피하고 담당자와 미팅하는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과대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A. 쉽게 표현하자면 학생들을 케어하고 서포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학교의 행사나 학사 일정을 공유해주며, 또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도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Q. 과대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이 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숨어있거든요. 또한, 교수님 말씀을 새겨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LINC 3.0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인터뷰 – 방송영상학과 엄희식

방영과 유명인사를 만나다!

그는 왜 과대표에 지원했는가?



▶ 엄희식 학우



▶ 엄희식 학우 평소 모습

A. 저학년, 고학년, 교수님 구분 없이 모두가 알아주는 점? 그만큼 인지도가 생기며 방송영상학과에 최고의 장점인 대인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과대표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안 좋은 점은 희의나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즐겨하는 웰스나드라이브 횟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알비도 시간을 변동하거나 알비를 빼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Q. 과대표, 후회하시나요?

A.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고 모두가 뜯어坼렸어요. 심지어 좋지 않은 소문도 불어나서 그런지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함에 따라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두가 응원해 주고 있어 안 좋은 소문은 점차 좋은 소문으로 바뀌고 있기에 현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Q. 과대표를 하며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A. 제가 과대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자아의 발견을 바탕으로 제 진로와 관련된 심층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제 역량을 발전시키고 실무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며, 앞으로의 진로 결정과 행동에 더욱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Q. 대학생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A. 아무래도 영상전공이다 오로지 저만의 작품을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팀들이 많고 각자 생각이 다르니 제가 제작하고 싶은 방향과 다른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Q. 방송영상학과를 졸업한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지만

프로덕션 회사를 차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학교 때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게 현재 저의 목표입니다. 만약 꿈을 못 이룬다 해도 영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뛰든지 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Q.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A. 지금까지 학교에서 같이 고생한 동기들과 시간이 나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년이 높아집수록 더욱 바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일률도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 간다면 일본에 가고 싶네요.

Q. 2학번에게 하고 싶은 말?

A. 대학교에 들어와서 며칠 속으로 끌려왔던 대학 생활이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기에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꾀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꾀하지 말고 도전하며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앞날이工商하니 무엇이든 도전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세요!

Q.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

A.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양측 간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수님들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신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Q. 방송영상학과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학년 대표라는 칭호가 아직은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학년 대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주는 학년 대표 엄희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TALK
생활/진로/취업
고민이 있다면?

-P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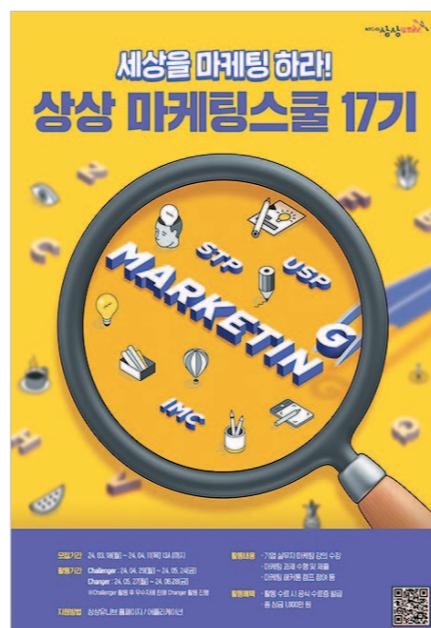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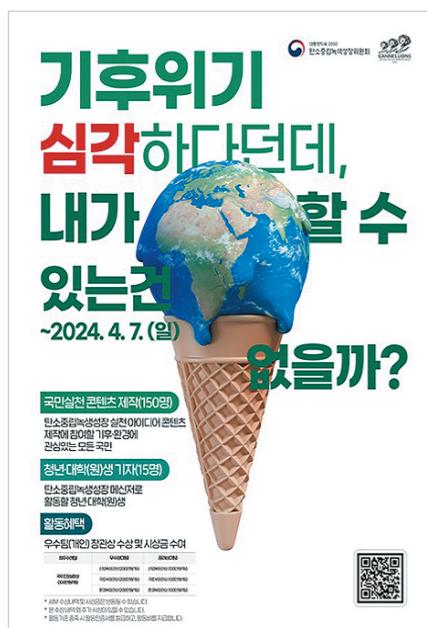
1:1 진로/취업 컨설팅
청년 고용 정책 및 혜택 안내
IPP형 일학습병행제
K-MOVE스쿨 연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051-320-2716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제 27회 넷째로 프렌즈 모집
- 접수기간 : ~2024. 04. 07(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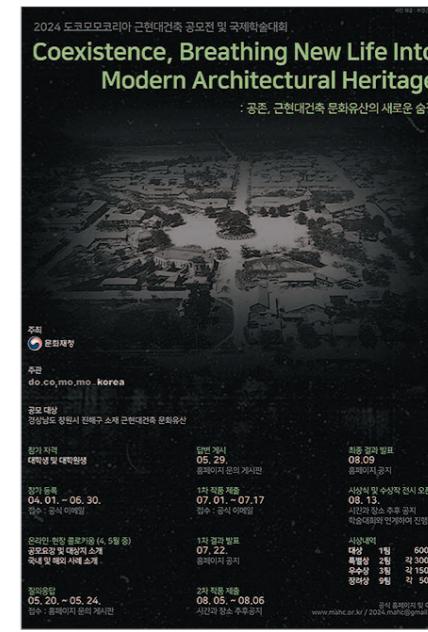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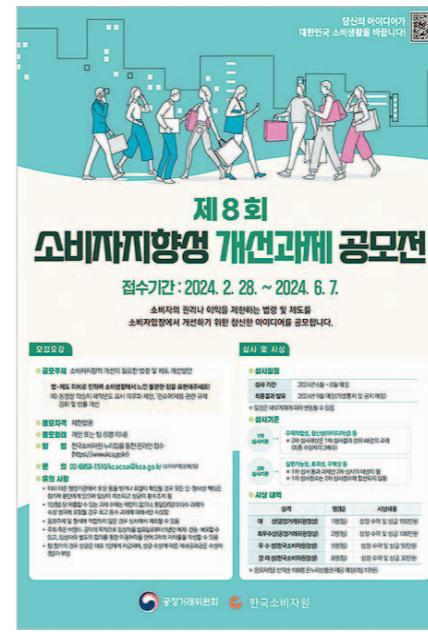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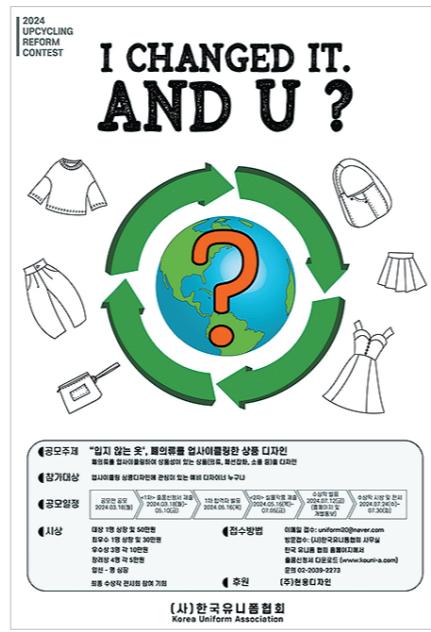
- 2024 서포터즈-BSTER
- 접수기간 : ~2024. 04. 09(화)
- 응모대상 : 부산 시내 거주 대학생
- 공모분야 : 서포터즈

- 세상을 마케팅하라!
- 삼성 마케팅 스쿨 17기
- 접수기간 : ~2024. 04. 11(목)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마케터/취업&창업

- 2024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4. 04. 12(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과학/공학

- 제 4회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소셜 임팩트 디지털 아트 경연대회
- 접수기간 : ~2024. 04. 14(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KT&G 상상마당 코코헬리지 (뷰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4. 04. 15(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창업/창업



- 제 16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 접수기간 : 2024. 04. 22 ~ 2024. 04. 26(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 제 3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출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4. 04. 30(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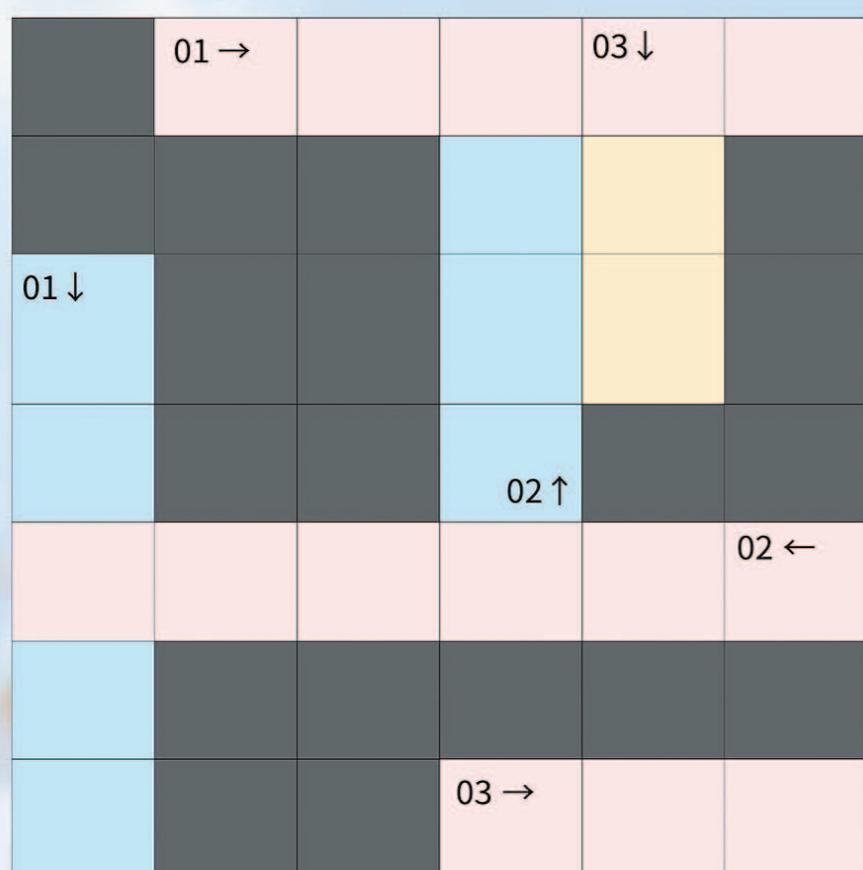
- 2024 업사이클링 컨테스트
- 접수기간 : ~2024. 05. 1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예체능/미술/음악

- 2024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KOSAC)
- 접수기간 : ~2024. 05. 07 ~ 2024. 05. 13(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 제 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4. 04. 28 ~ 2024. 05. 07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 도쿄모모코리아 근현대건축 공모전 및 국제학술대회
- 접수기간 : ~2024. 06. 30(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매일 왔네요~ 심자말풀이



#가로풀이

01 우리 대학은 일본 굴지의 교육재단인 00000과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02 간호학과 학생은 대학 000 00000의 도움을 받아 아주대학교 의료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다.

03 부산 KCC 감독의 이름은?

#세로풀이

01 부산광역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0000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02 작업치료과 0000, 전원 합격 쾌거 이루다!

03 학점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기초 000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습기자 모집 ~ing

기사를 쓰고 싶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

보내실 곳 메일 : mylifec0936@gmail.com

※ 기간 : 4월 1일 ~ 4월 21일 (일) 18:00 까지
※ 당첨자 발표 : 4월 22일 (월) 개별 연락
※ 정답과 함께 응모자 이름, 전화번호, 학과, 학번을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총 4분에게 3만원 상당의 경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소프트웨어학과 김*경 학생